



파란하늘 가을바람... 女心은 즐거워

숨쉬기도 버거웠던 폭염이 어느덧 가을바람에 자리를 내줬다. 초가를 날싸를 보인 2일 오후 광주시 서구 풍암호수공원, 양산을 쓴 채 지나가는 한 여성의 모습이 파란 하늘과 잘 어울려 가을 수채화를 연출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동구청 '민선 4기 인물 퇴진 촉구' 공방

공무원 노조 "낙하산 인사 사퇴하라" 당사자들 "잔여 임기는 채우겠다"

광주 동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민선 4기에서 임명된 일부 인사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인사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 분위기가 감지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동구지부는 지난 28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동구자원봉사센터 나모(64) 센터장과 동구생활체육회 정모(69) 사무국장의 자진사퇴 안전을 논의했다고 2일 밝혔다.

나 센터장 등이 민선 4기 때 '낙하산'으로 선출된 인사인데다, 지난해 관련선거 개입 의혹과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동구 명예를 실추했음에도, 여태껏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게 노조 측 판단이다.

이들이 각종 사건에 연루, 동구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쳤음에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데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서 자진 사퇴까지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구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공개적으로 이들의 용퇴를 촉구하는 비판의 글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감사 철거'라는 아이디어 글을 올린 공무원은 "낙하산 인사라면 자진 사퇴해야 한다. 끝까지 잔여 임기를 거론한다면 이들의 채용절차에 대해서 의뢰해야 한다"고 적었다. '자원 봉사'라는 필명으로 글을 쓴 공무원은 "한 명은 지난 관련선거의 중심기관 수장으로 문제가 많았고 다른 한 명은 친인척 채용비리로 말이 많은 것 같다. 자진사퇴 하지 않으면 강하게 나가야 한다"고 썼다.

거론된 당사자들은 당혹해 하면서도 법적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 센터장은 "(지난 2011년 5월 9일) 재임용 당시 이사회에서 결정된 문제로, 지난 총선 당시 거론된 바 있는데, 왜 이제와 논란이 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사무국장도 "친인척 채용비리는 사실 무근으로, 잘못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다"면서 "잔여 임기 부여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한편, 나 센터장의 경우 동구청 공무원 퇴임 이후 지난 2008년 5월 8일 임용됐다. 정 사무국장도 퇴임 후 같은 해 7월 1일 발령됐다. 이들의 잔여 임기는 내년 5월 8일과 2015년 12월 말까지다.

/이종철기자 galee@kwangju.co.kr

11월부터 교통카드 한장으로 전국 다닌다

11월부터 전국의 고속도로·철도·지하철·시내버스를 교통카드 한 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기능의 선불형(충전식) 전국호환 교통카드가 11월 출시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는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아직 교통카드 전국 호환 사업에 동참하지 않은 서울수도 참여하기로 원론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3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에서 이미 협약을 체결한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8개 도를 비롯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시·고속버스 단체와 추진협약을 체결한다.

연합스

광주·전남 올 여름기온 40년만에 최고

폭염과 열대야로 뜨겁게 달궀졌던 광주·전남의 여름 기온이 최근 40년 사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올 여름(6~8월) 광주·전남 평균기온은 25.6도로 평년(24도)에 비해 1.6도 높았다. 이는 전국적인 기상관측 기록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여름철 최고기온과 최저기온은 각각 29.8도와 22.5도로 평년(28.1도와 20.7도)보다 각각 1.7도, 1.8도 높았다. 특히, 최저기온은 1973년 이래 가장

높아 올 여름 더위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위가 절정에 달했던 8월에는 기온과 관련된 여러 기록이 경신되기도 했다. 8월, 광주·전남지역의 평균기온과 최고기온이 각각 27.7도와 32.5도를 기록해 40년 만에 최고 수치를 기록했고, 해남(36.9도)과 완도(36.9도)는 일 최고기온이 경신했다.

일 최고기온이 폭염의 척도인 33도 이상인 날도 8월에만 13.3일에 달해, 1973년 이래 가장 많았다.

/박정열기자 halo@kwangju.co.kr

부실보수 논란 한빛원전 2호기 가동 정치

한빛(영광) 원전 2호기 가동이 중단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부실 보수 논란이 일고 있는 한빛 2호기의 가동을 전격 중단키로 했기 때문이다.

애초 부실 정비 논란에도 불구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상태에서 가동될 예정이던 한빛 2호기 가동이 중단된 것은 원안위의 결정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원안위는 원전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도 확인하고 있다.

원안위는 2일 한빛 2호기 증기발생기 보수와 관련, '제 13회 원자력안전

위원회'를 개최하고 증기발생기 용접 재질을 확인하기 위해 한빛 2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단, 원안위는 한빛 2호기를 당장 중단하는 대신,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2호기 안정성 확인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발전 정치 시기 등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또 영광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빛 2호기 부실정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한 주민설명회를 갖고 가동 정지에 따른 지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영광=조익상기자 ischo@

오늘 날씨 (Today's Weather) section including a weather map of Korea, temperature forecasts for various cities, and a 9-day outlook table.

오늘 수능 9월 모의평가

광주·전남 3만9884명 응시 수학·영어 A형선택 많아져

3일 실시하는 9월 모의평가에서 광주·전남지역 응시생들은 6월 모의평가 때보다 수학·영어 과목에서 쉬운 A형으로 대폭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광주시·전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를 3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123개 고등학교와 263개 학원에서 실시한다. 이번엔 응시한 수험생은 광주 2만1273명·전남 1만8611명 등 총 64만2천973명이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56만1922명, 졸업생은 8만1051명이다.

영역별 선택비율은 국어 A형이 51.6%(광주 52.6%, 전남 52.2%), B형이 48.4%(광주 47.4%, 전남 47.8%)이고, 수학 A형은 70.0%(광주 71.8%, 전남 68.1%), B형은 30.0%(광주 28.2%, 31.9%)다. 영어 A형은

24.9%(광주 32.8%, 전남 22.7%), B형은 75.1%(광주 67.2%, 전남 77.3%)로, 지난 6월 모의평가 때보다 B형에서 A형으로 7.2%포인트 옮겨갔다. 사회탐구는 56.1%, 과학탐구 38.9%, 직업탐구는 5.0%다.

특히 광주지역 수험생들의 영어 A형 선택은 전국 평균보다 무려 7.9%포인트나 높아 수도권 등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영어 B형에서 A형으로의 이동도 지난 3월 13.2%에서 6월 19.4%, 9월 32.8%로 6월모평때보다 무려 13.4%포인트 옮겨갔다.

수학 A형 응시는 지난 3월 56.8%에서 6월 62.5%, 9월 71.8%로 9.3%포인트 이동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는 시험 성격이나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이 11월7일 시행하는 실제 수능과 같게 출제된다. 역시 EBS 수능교재·강의와 연계 수준이 70%다. 모의평가 결과는 27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Large advertisement for 'Segistar' (세기보청기) featuring a cityscape background and text promoting hearing aid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website URL.

Footer section containing various certification logos (FDA, CE, ISO, etc.), contact numbers (1588-8499), and a list of regional branches.